

수입차시장, 친환경 모델 중심 재편... 中 브랜드 존재감 커져

1~5월 신규등록 14만5973대 집계
전년비 32% ↑... 테슬라 점유율 1위
中 신차 출시·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국내 수입차 시장이 친환경차 모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랜 기간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미국 전기차 브랜드에 이어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수입차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신차 라인업 확대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11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14만5973대로 전년 동기대비 32.3% 증가했으며, 그 중심에는 친환경차가 자리하고 있다.



지커 코리아 중형 SUV '7X'.

테슬라의 경우 지난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4만5020대로 시장 점유율 30.84% 1위에 이름을 올렸다. BMW(3만2581대)와 메르세데스-벤츠(3553대)가 뒤를 잇고 있지만 격차는 벌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테슬라의 상승세가 장기화 될지는 의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테슬라 서비스센터는 16곳에 불과하다. 판매

량은 급증하지만 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서비스센터와 수리 대기, 부품 공급 등의 문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 완성차 브랜드의 가파른 상승세는 주목할 부분이다.

BYD는 공격적인 가격 경쟁 정책을 바탕으로 지난 5월까지 7023대를 판매하며

5월에 등극했다. BYD는 돌핀 2450만원, 아토3 플러스 3350만원, 쉐 3990만원, 쉐 라이언7 449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상승세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YD는 오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인 'DM-i'(DualMode-intelligent)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이후 올 하반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커가 프리미엄 전동화 모델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최근 지커는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7X'의 국내 인증을 마치고 출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지커 7X와 001은 테슬라 모델 Y와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이 경쟁 차종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BYD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차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면 지커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

설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신차 출시와 함께 전시장과 서비스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BYD는 현재 전시장 33개, 서비스센터 1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시장 35개, 서비스센터 26개 등 공격적으로 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커는 현재 서울(강남·서초·강서), 경기권(판교·일산·인천·수원), 충청권(대전), 경상권(부산) 등 전국 9개 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시장 14개, 서비스센터 11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입차 시장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본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있었다면 지난해부터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장 전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공식 도입

챗GPT, 제미니, 클로드 등 활용
업무 특성·목적에 따라 최적 선택

삼성전자가 챗GPT와 제미니, 클로드 등 글로벌 빅테크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며 인공지능 전환(AI)에 속도를 낸다. 특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업무 목적에 따라 최적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 혁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DX부문은 12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DX부문 임직원들은 사내에서 챗GPT, 제미니, 엔터프라이즈, 클로드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26년 말까지 전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40%가 AI 에이전트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

성형 AI가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삼성전자 역시 AX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특정 1개 AI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임직원들이 업무별 특성과 목적에 적합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I를 일회성으로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직원 누구나 최적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임직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후보군에 대한 서비스 실효성 검증을 거쳐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대표 생성형 AI 서비스 3종을 선정하고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업무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의사결정 속도 ▲조

직 전반의 실행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외부 생성형 AI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DX부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사진)은 "외부 생성형 AI 도입은 단순히 업무 도구로서 AI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실행 속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며 "임직원 누구나 자신의 업무에 가장 적합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생산성을 넘어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DX부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S에코에너지, K-철도 공급망 합류

LSCV, 현대로템에 케이블 공급

LS에코에너지가 현대로템 공급망에 진입하며 철도용 특수 케이블 사업 확대에 나섰다. 철도 차량용 통신 케이블 첫 공급을 계기로 도시철도와 산업 인프라 분야로 고부가 케이블 공급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CV가 최근 현대로템에 철도 차량용 통신 케이블을 처음 공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급 제품은 대전과 울산 도시철도 수소트램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철도 차량용 통신 케이블은 열차 내 제어장치와 통신 시스템을 연결해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핵심 부품이다.

철도 차량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부품에도 높은 품질 안정성과 내구성이 요구된다. 특히 철도 차량용 부품은 검증된 공급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공급 실적 확보 자체가 향후 사업

확대의 기반이 된다.

LS에코에너지는 이번 공급을 통해 철도용 특수 케이블 분야에서 첫 공급 실적을 확보했다. 현대로템이 국내외 철도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후속 공급 기회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과 동남아 철도 인프라 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베트남 정부가 남북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등 대규모 철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특수 케이블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LS에코에너지는 현지 생산기자인 LSCV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철도 시장 공략도 강화할 계획이다.

LS에코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공급은 현대로템 공급망 진입과 철도용 특수 케이블 시장 진출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대로템과 협력을 확대하고 K-철도의 해외 프로젝트와 연계해 글로벌 철도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전선, 글로벌 HVDC 동맹... 수주 경쟁력 높인다

한-EU 에너지 전환 상생협력 포럼
안데를·보스칼리스 업무협약 체결

대한전선이 글로벌 해양 인프라 전문 기업과 손잡고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케이블 제조 역량에 해상 설치·시공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하면서 대형 해저 전력망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전선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에너지 전환 상생협력 포럼에서 벨기에 안데를, 네덜란드 보스칼리스와 각각 HVDC 해저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마련한 행사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인프라 확충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왼쪽부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안 피터 데 누(Jan Pieter De Nul) 안데를 최고경영자(CEO)가 HVDC 해저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선

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과 EU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

다. 유럽에서는 지멘스, RWE, TenneT 등 전력회사와 송배전망 운영사, 설계·조달·시공(EPC)·해양 인프라 기업들이 자리했다. 대한전선에서는 송종민 부회장이 참석해 에너지 전환과 전력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전선은 이번 포럼에서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전선의 협력 파트너사인 안데를과 보스칼리스는 해상풍력, 해양 인프라, 해저 케이블 설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VDC 해저케이블과 관련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모색할 계획이다.

송종민 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HVDC 전력망 분야의 기술 및 사업 역량 강화는 물론 국내 전력·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그룹, 사내 신생기업 3곳 분사

포지티브플로, 웨어비, 자비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도유망한 사내 신생기업(스타트업) 3곳을 분사했다.

현대차그룹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제로원 컴퍼니빌더'가 지난 1년 동안 육성된 포지티브플로, 웨어비, 자비스를 독립 기업으로 분사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지티브플로는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매트리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침대 매트리스에 부착한 인공지능(AI) 센서가 이용자의 수면 상태를 감지한 다음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해 숙면을 돕는다. 최근에는 현대건설과 슬립테크(최신 기술을 활용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제품·서비스) 분야에서 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웨어비는 고정밀 위치센서에 기반한 산업용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안전

모와 조끼 등을 착용한 작업자와 무인운반차, 트럭 등이 서로의 위치를 쌍방향으로 전송한다. 사람과 차량의 위치를 오차 범위 10cm 이내로 파악해 작업장 내 충돌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웨어비의 사업 목표다. 기아 화성 PBV 컨버전센터 생산라인에서 지게차와 작업자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비스는 차량용 소프트웨어(SW) 분야 스타트업이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SW 개발 시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작성하거나 사람이 코딩해 오류가 발생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용 SW 개발에 필요한 표준 도구와 코딩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번 3개 회사의 분사로 현대차그룹에서 독립한 사내 스타트업은 총 44곳으로 늘었다. /양성운 기자